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군집분석을 통한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 연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송 지 은

군집분석을 통한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 연구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송 지 은

인 준 서

송지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의 하위유형을 확인하고, 이들을 유의하게 구분해주는 개인적 특성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여자대학교 및 남녀공학대학교 여대생 325(결정 166명, 미결정 159명)명이었으며, 한국 여대생 진로미결정 척도,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우울척도, 부적응적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정도와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기대 요인을 제외하고 모든 변인에서 진로결정 정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둘째, 진로결정 여부에 따른 진로미결정 하위요인의 경험, 일반적 자기효능감,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기대 요인을 제외하고 모든 변인에서 진로결정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군집분석을 통해 여대생의 진로미결정 하위유형을 확인한 결과, ‘전반적인 미결정형’, ‘전통적 여성형’, ‘동기 부족형’, ‘정보가 부족한 의사결정 곤란형’, ‘정보가 부족한 내적 갈등형’의 다섯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넷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을 구분하여 주는 결정변인을 확인한 결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우울’,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비난’ 요인이 유의한 예측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진로문제를 경험하는 여대생 내담자를 상담할 때 그들의 요구와 특징에 맞는 차별화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여자대학생, 진로미결정, 하위유형, 군집분석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1. 여성과 진로 5
2. 진로미결정 11
3. 진로미결정 하위요인 14
4. 자기효능감,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 19
 - 1)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20
 - 2) 우울과 진로미결정 25
 - 3)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 29
5. 진로미결정 하위유형 34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38
2. 측정 도구 39
 - 1) 한국 여대생 진로미결정 척도 39
 - 2) 일반적 자기효능감 40
 - 3) 우울 41
 - 4) 부적응적 완벽주의 42
3. 자료 분석 42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44
2.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45
3. 진로결정 정도에 따른 특성의 차이 47
4. 군집분석을 통한 진로미결정 여대생 유형의 분류 49
5. 진로미결정 여대생의 하위유형 결정변인 53

V. 논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57
 - 1)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 하위요인, 개인적 특성 간의 관계 57
 - 2) 진로결정 정도에 따른 특성의 차이 59
 - 3) 진로미결정 여대생의 하위유형 분류 및 유형별 특징 61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제언 65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8
<표 2> 한국 여대생 진로미결정 척도의 문항 구성 및 Cronbach α 값	40
<표 3>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Cronbach α 값	41
<표 4> 우울 척도의 Cronbach α 값	41
<표 5> 완벽주의 척도의 문항 구성 및 Cronbach α 값	42
<표 6>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N=775)	44
<표 7> 연구변인 간 상관계수(N=325)	46
<표 8> 진로결정 여부에 따른 집단별 빈도	47
<표 9> 진로결정 및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 간의 연구변인별 차이	48
<표 10> 군집화 일정표	49
<표 11> 최종 하위유형별 평균, 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51
<표 1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54

그림 목 차

<그림 1> 유형별 프로파일	52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러 진로발달단계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공통적으로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Ginzberg, Ginzberg, Axelrad, & Herma, 1951; Super, 1957). 그러나 진로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현실은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먼저 내적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 및 중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부재 등으로 인해 중등학교 시절에 이미 수행되어야 할 진로발달과업을 대학 입학 이후로 미뤄온 상황이다(신기동, 전병순, 임동진, 조형숙, 2001).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직업의 전문화·세분화 현상으로 인해 취업 준비과정이 복잡해져가고 있고,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이형국, 2010). 이러한 현실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진로를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끔 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진로지표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49.1%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상준, 정윤경, 김규상, 2009).

진로미결정은 개인이 직업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Crites, 1981),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바로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진로미결정은 개인의 적응적인 삶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중요한 발달과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최근까지 진로미결정 집단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미결정의 다양한 원인 및 하위유형들이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

리나라에서는 유형화를 위한 노력이나 유형에 맞는 처치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배중훈, 2001),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지도는 대개 일반적이고 획일화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많다. 이는 진로문제와 관련된 내담자들에게 각각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차별적인 진단, 차별적인 처치’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차별적인 진단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여대생의 경우 대학생으로서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남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73.1%인데 반해 여성의 참여율은 49.7%로,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취업에서 주로 느끼는 장애요인을 조사한 통계청의 2009년도 결과¹⁾에 따르면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연령대인 20~29세의 여성들의 41.6%가 육아부담을 꼽았으며, 26.4%가 사회적 편견, 14.6%가 불평등한 근로여건이라고 답해 여성이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과정과정이 다르고 진로미결정의 하위차원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김정미, 2003)을 시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성 중립적인 진로지도만으로는 여대생의 진로지도에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들에 여성 고유의 진로장벽을 포함하여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진로미결정 집단의 하위유형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연구 중 아직 여대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없으며, 성별 고유의 진로장벽을 다룬 유형화 연구가 없다는 점은 더욱이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1) 총 9가지 요인에 대해 복수응답이 가능하였음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자기효능감,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 변인이 진로결정 여부 및 진로미결정 하위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미결정의 하위 유형을 의미 있게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유형별 진로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앞에서 논의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 및 그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 및 개인적 특성에서 진로결정 여대생 집단과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 1-1. 진로결정 여대생 집단과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1-2. 진로결정 여대생 집단과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은 개인적 특성(일반적 자기효능감,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2】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가설 2.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지닌 하위유형으로 분류될 것이다.

【연구문제 3】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을 구분해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가설 3.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은 개인적 특성(일반적 자기효능감,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의해 유의하게 구분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여대생들의 진로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여성의 진로결정의 특징을 알아본 뒤, 진로미결정의 개념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도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자기효능감, 우울, 완벽주의에 관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 유형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 여성과 진로

진로발달과정에서 남녀가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성의 진로발달과정은 남성의 경우보다 더 복잡하다(Betz & Fitzgerald, 1987; Fitzgerald & Crites, 1980). 남성보다 기회가 한정되어 있고, 자기능력을 맘껏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과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점 등이 여성의 진로발달의 독특한 측면이다(O'Brien & Fassinger, 1993; 최수옥, 2002, 재인용).

그러나 대부분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는 여성의 진로발달에 대해 확립된 이론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절에서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여성의 진로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본 뒤, 여성의 진로결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여성의 진로발달에 대해 최초의 이론을 제시한 학자는 Super(1957)이다. 그는 여성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가사와 육아라고 가정하였으나, 사회의 변

화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대되자 이를 고려하여 여성의 진로발달 양상을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여성의 진로유형을 (1)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해서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전혀 없는 ‘안정된 가정주부의 진로유형(stable homemaking pattern)’, (2) 학교를 졸업한 후 결혼할 때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전통적인 진로유형(conventional career pattern)’, (3) 학교를 졸업한 후 정년까지 계속 안정된 직업 생활을 유지하는 ‘안정된 직업유형(stable working pattern)’, (4) 학교를 졸업한 후,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그 뒤에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해 나가는 ‘이중 진로유형(double track career pattern)’, (5) 학교를 졸업한 후 일을 좀 하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놓은 후에 다시 직장생활로 돌아가는 유형인 ‘단절 진로유형(interrupted career pattern)’, (6)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가졌다가, 일을 중단하고 결혼한 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번갈아가며 시행하는 ‘불안정한 진로유형(unstable career pattern)’, (7) 순수한 직업의식 없이, 서로 관련이 없는 직업을 이것저것 가져보는 ‘다면적 시행 진로유형(multiple-trial career pattern)’의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다.

Ginzberg(1966)는 여성은 학교교육 기간 중에 결혼에 강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교육, 직업준비를 방해받는 반면, 남성은 결혼에 대한 관심을 학교교육 완성에 가짐으로써 결혼과 진로 간에 갈등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남성의 진로선택과 준비모형이 여성을 위한 표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짓고, 여성의 진로상담 접근에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생활방식 차원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전통적(traditional) 양식’으로서 가정, 남편, 자녀 기준의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전업주부의 경우이고, 둘째는 ‘과도기적(transitional) 양식’으로서 일시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방식으로 가정과 직업을 혼합하는 경우, 즉 직업보다 가정에 더 중점을 두는 경우이며, 셋째는 ‘혁신적(innovative) 양식’으로서 진지하게 진로에 관여하여 가정과 직업의 조화를 위한 적극적인 계획과 준비를 시도하는, 직업과 가정에 같은 중요성을 두는 경우이다(문미란, 2003, 재

인용).

Spencer(1982) 역시 여성의 발달과정은 남성의 것과 다르며 여성이 독특한 발달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남성의 발달을 초기 전환(17-28세), 30대의 전환(29-39세), 중년기의 전환(39-65세), 그리고 성인후기의 전환단계(65세 이상)로 분류하여 각 단계를 여성의 발달과 대비시켜 보았다. 초기 전환단계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인데,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독립과 자기표현에 대한 격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30대의 전환단계에서 여성은 자신의 역할을 가정주부라고 학습하지만, 진로에 대한 포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갈등을 겪게 되고, 가족과 직업에 대한 좌절감을 느낀다. 중년기의 전환단계는 과거를 돌아보고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여성은 남편과 자녀에 의하여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독립하게 되면 새로운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인후기의 전환단계는 인생을 통합하는 단계이나 이전의 발달단계에서 이렇다 할 성취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성은 이 단계에서도 성취감을 맛볼 수 없다. Spencer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여성은 처음부터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였다(김민정, 2000, 재인용).

Betz와 Fitzgerald(1987)는 여성이 진로발달과정에서 남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을 한다고 보았다. 남성은 직업을 가진 뒤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직업선택 후 조직의 사다리에서 직선적 발전, 정점 도달, 은퇴 등의 일반적인 경력개발의 형태를 갖지만, 여성은 임신과 출산, 육아와 가사로 인하여 훨씬 복잡한 양상의 진로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성의 진로선택이 가정과 가족에 대한 책임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계층과 더불어 결혼, 재정, 교육수준, 과거에 가졌던 문화적 가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직업과 학업에서의 성공, 역할 모델의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지각된 격려가 여성의 일, 자신,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

서 생활양식에 대한 싫고 좋음에 영향을 주며, 나가서 진로선택의 현실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여성의 진로발달과정이 남성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진로발달은 단순히 시간경과에 따라 발전하고 쇠퇴하는 단일한 양상을 나타내기보다 각 여성들이 처해있는 개인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좀 더 복잡한 모습으로 발달해 가며, 특히 여성이 진로를 선택하고 발달시켜 나가는 가운데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초기 진로발달 이론에서는 여성을 가정-지향적인 유형, 일-지향적인 유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직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부여되고 있어 가정과 직업에서의 역할 갈등, 즉 다중 역할 갈등은 여성이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포부를 발전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Swanson과 Tokar(1991a)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선택과정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문제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이론을 제안하였는데, 진로선택 과정에서 남녀에 따른 문제들을 비교한 결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진로발달과정에 내적 변인보다는 가족-직업갈등변인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난미, 2005, 재인용).

이처럼 여성들에게 가정과 직업에서의 역할 갈등은 일종의 ‘진로장벽(career barriers)’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장벽이란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다시 말해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개인 내적이거나 외적인 요인들을 말한다(Swanson, Daniels, 1995; Swanson, Woitke, 1997; 손은령, 2001a). 여기에서 내적 장벽은 심리적인 측면의 장애들이며, 외적 장벽은 주로 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장벽들이다. 손은령(2001a)은 진로장벽을 정의하면서 진로와 관련된 여러 경험들, 예를 들어 취업, 진학, 승진,

직업의 지속, 가사와 직장생활의 병행, 직무행동 등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 사건이나 사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간의 관계를 밝혀왔다. Gottfredson(1981)과 Green-black(1988)은 진로장벽의 지각이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혔으며, Lucas와 Epperson(1990)도 지각된 진로장벽을 진로결정의 중요한 차원으로 설명하였다(황지영, 2007, 재인용).

이처럼 진로장벽은 진로발달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진로장벽들에 무엇이 있는지 요인을 추출해내고자 하였다. Swanson과 Daniels, Tokar(1996)는 이전의 연구(1991b)에서 추출해낸 18개의 진로장벽의 요인을 보다 세분화시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3개의 하위척도를 가진 진로장벽검사(CBI: Career Barriers Inventory)를 개발하였고, Swanson과 Daniels(1995)는 진로장벽검사 개정판(CBI-R: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을 남녀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여 13개의 진로장벽요인을 추출해냈다. 추출된 13개의 하위요인들은 ① 성차별, ② 자신감 부족, ③ 다중역할 갈등, ④ 자녀와 진로 요구사항 간의 갈등, ⑤ 인종차별, ⑥ 부적절한 준비, ⑦ 의미 있는 타인의 불인정, ⑧ 의사결정의 어려움, ⑨ 진로 불만족, ⑩ 비전통적 진로 선택에 대한 지지부족, ⑪ 장애·건강 염려, ⑫ 노동시장의 제약, ⑬ 관계망 만들기·사회화의 어려움 등이었다.

Luzzo(1996)는 남녀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내용을 ① 가족관련 장벽, ② 학업기술 장벽, ③ 인종차별 장벽, ④ 성차별 장벽, ⑤ 재정장벽, ⑥ 연령차별 장벽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은영(2001)이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

장애검사(KCBI)를 개발하였으며, 이 검사 도구는 ① 대인관계 어려움, ② 자기명확성 부족, ③ 경제적 어려움, ④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⑤ 직업 정보의 부족, ⑥ 나이문제, ⑦ 신체적 열등감, ⑧ 흥미부족, ⑨ 미래 불안의 9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진로장벽의 지각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더 많은 진로장벽을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왔다(Swanson & Daniels, 1994; Swanson & Tokar, 1991a; Fitzgerald & Betz, 1983; Mcwhirter, 1997). Swanson과 동료들(Swanson & Daniels, 1994; Swanson & Tokar, 1991a)은 CBI를 통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의 성차를 연구했는데, 여대생이 전반적으로 CBI의 하위척도들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다. 특히, CBI의 13개 하위척도들 중에서 성차별, 자신감 부족, 다중역할 갈등, 자녀와 진로요구들 간의 갈등, 부적절한 준비, 의사결정의 어려움, 진로에서의 불만족과 같은 7개 하위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여학생은 대체적으로 가족 또는 차별과 관련된 장벽을 남학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보연, 2011, 재인용).

이에 손은령(2001a)은 우리나라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내용과 요인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는데 CBI를 바탕으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진로장벽 항목들을 추출한 결과, 7가지 요인 즉, ① 차별, ②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의 부족, ③ 다중 역할로 인한 갈등, ④ 미결정 및 직업준비 부족, ⑤ 노동시장 및 관습의 제약, ⑥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⑦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의 요인들이 추출되었다. 이 중에서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게 지각되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남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내용과 지각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숙(2003)의 연구에서도 진로장벽의 9가지 하위요인 중 나이문제, 경제

적 어려움에 대한 장벽요인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장벽의 지각에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어(김은영, 2001; 이기학, 2003; 김선중, 2005; 최숙현, 2007) 국내의 연구결과들로는 진로장벽에 대한 성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 역할 갈등, 차별,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등 남성과는 다르게 여성들이 경험하는 특수한 진로장벽 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다양한 형태의 진로장벽을 경험할 수 있지만,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김계현(1995)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은 여러 진로장벽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김창대(1999)도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전 생애적 관점에서 결혼과 관련된 여러 진로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선중, 2005, 재인용).

2. 진로미결정

진로(Career)란 개인이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을 의미한다. 즉, 진로는 개인이 가졌던 직업으로서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그의 태도, 동기, 행동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계현, 1995). 또 다른 정의로는 개인이 종사하는 직업의 계열이며(Tolbert, 1980), 생애, 경력, 직업 등으로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장래, 미래에 대한 전망 등으로 인식되며, 생애 직업 발달과 그 과정 내용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이다(김충기, 1989).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후기 청소년기에 속

하며, 자아정체감 확립,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진로 결정 및 준비의 발달과업을 갖게 된다. 이 중에서도 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다. 개인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활의 많은 부분 즉, 능력 발휘의 기회, 인간관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 등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므로(Tolbert, 1980), 대학생 시기에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나 전공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처럼 인간의 생애에 있어 진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연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진로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진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이 제대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서미경, 2002).

진로미결정은 개인이 직업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Crites, 1981)이며, 말 그대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진로결정이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설계와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진로발달로 이루어진 결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라면, 진로미결정은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인식과 정보의 부족, 선택에 대한 두려움, 자신과 환경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 등의 이유로 진로를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상태’, 즉 진로결정과 상반되는 개념을 뜻한다(강선영, 1996).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계기는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불확실해하고 고민하는가를 밝혀내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Wanberg & Muchinsky, 1992; 박종원, 2002, 재인용). 이에 진로미결정자의 특성에 대해 밝히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찍이 Goodstein(1965)은 진로 미결정자를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유형과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탁진국, 1996, 재인용). 이러한 구분은 진로미결정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분류로서 여러 연구들에서 ‘진로를 미결정한(undecided)’ 사람들과 ‘성격적으로 결단성이 부족한(indecisive)’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다(Fuqua & Hartman, 1983; Salomone, 1988; Vondracek, Hostetler, Schulenberg & Shimizu, 1990). 전자는 발달적인 미결정으로서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만, 후자는 만성적인 미결정으로서 진로 영역 외의 다른 의사결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유형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진로 상담 분야에서 이러한 진로미결정자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같은 미결정이라고 해도 개인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분법적 분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상담에서의 실패를 막기 위함이다. Holland와 Holland(1977)는 진로미결정 학생들이 다양한 하위유형으로 구성되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진로미결정이란 여러 가지 관련된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들을 위한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를 위해 진로미결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져왔다. 이는 주로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변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과 군집화를 통해 하위유형을 밝히려는 것이었다(서미경, 2002).

이론적 배경의 후반부에서 제시하겠지만, 선행연구 결과 진로미결정에는 다양한 변인이 관련되어 있고, 미결정 집단 내 여러 하위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현일, 김기원, 2003; 배종훈, 2001; Chartrand, Martin, Robbins, McAuliffe, Pickering & Calliotin, 1994; Fuqua, Blum, & Hartman, 1988; Hartman, & Fuqua, 1982; Larson, Heppner, Ham, Dugan, 1988; Rojewski, 1994). 이 중 어떠한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진로미결정 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직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과 무엇이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탁진국, 1996).

그러나 진로결정이 개인이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진로미결정 집단을 유형화하고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특성상 여대생의 진로결정 과정에서 여성 고유의 장벽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손은령, 2001a), 이러한 진로장벽요소가 진로미결정 집단의 유형화 연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진로미결정 하위요인

앞서 보았듯이 초기에는 진로미결정을 발달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현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개인의 성격적인 문제로 인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현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진로미결정을 이해하기 위해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을 통해 진로미결정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현상임이 밝혀졌다.

국내외에서 개발된 대부분의 진로미결정 관련 측정도구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우유부단함’, ‘내적 장애’, ‘외적 장애’, ‘동기의 부족’ 등의 하위요인을 일부 혹은 전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ati, Krausz & Osipow, 1996; Jones, 1989; Osipow, Carney & Barak, 1976; 김정미, 2003; 박종원, 2002; 서미경, 2002; 이성심, 2005; 탁진국, 1996; 탁진국, 이기학, 2001). 이에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이는 자신의 흥미, 능력, 성격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즉 진로정체감이 명확하게 형성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Tiedeman과 O'Hara(1963)는 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정이 일에 대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진로정체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처럼 직업은 곧 정체감의 표현이며 정체감의 내용에 영향을 받아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게 된다. 또한 Holland와 Diager, Power(1980)는 이러한 특성들은 분명하지 않은 환경적 입장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확신을 주며 비교적 만족한 의사결정으로 이끌어준다고 하였다(고미나, 박재황, 2008, 재인용). 따라서 정체감이 낮을수록 진로결정력이 낮은 특성을 보이게 된다(Larkin, 1987).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련된 문항 내용에는 '내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등이 있다.

2)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이는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희망직업의 특성, 업무, 취업조건 등에 관해 정보가 부족한 것을 말한다. Holland(1959)는 개인의 직업지식의 정확성과 인식도는 적절한 직업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였다(박현주, 2007, 재인용). 진로결정과정에서 직업정보의 중요성은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진로탐색행동이란 '진로결정이나 진로발달을 목적으로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전까지 개인의 자극 영역 내에 있지 않았던 직업·직무·직장 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인지적·행동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Stumpf, Colarelli, & Hartman, 1983), 쉽게 말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자기 자신 및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탐색행동 수준이 높은 학생은 진로결정 수준 또한 높을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Parsons(1909)는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일의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김정미(2003)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미결정 척도를 개발한 뒤, 척도의 하위요인별로 진로결정자와 진로미결정자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신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요인에서 두 집단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진로결정과정에서 다양하고 정확한 직업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금재호(1997)는 청소년기, 특히 대학생 시기에 제공되는 적절한 직업정보는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결정하고, 잘못된 일 궁합(job matching)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관련 문항 내용은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등이 있다.

3) 우유부단

우유부단이란 결정하기를 어려워하는 성향으로 일반적으로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 세부적인 것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 결정할 때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고려함으로써 결정이 지연되는 경향을 의미한다(이재창, 박미진, 김수리, 2005). 이러한 정의를 통해 보았을 때, 우유부단한 학생은 진로결정이라는 중요한 이슈에 직면하였을 때 한 가지 진로목표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을 어려워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유부단과 진로결정 간의 관계는 또한 개인의 의사결정 유형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Harren(1979)은 개인이 의사결정과업을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특징적인 형식, 또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의사결정유형이라고 정의하

면서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의 세 가지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이 중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의 학생들이 진로미결정 정도가 낮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유부단한 성격은 의존적 유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과 우유부단, 의사결정유형 간 관계를 살핀 이재창 등(2005)의 연구에서 우유부단은 의존적 유형, 미결정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확신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우유부단이 높을수록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며 미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부단과 관련된 문항 내용은 ‘나는 무엇이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다’ 등이 있다.

4)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 중 내적갈등은 접근-접근 갈등, 개인의 현재 상태와 희망 진로 간의 불일치, 역량의 부족, 외모 및 신체적 조건, 학벌 등의 문제로 인해 진로결정과정에서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외적갈등은 개인 외적인 요소, 즉 중요한 타인과의 의견 불일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이 중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외적 갈등은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집단주의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결정은 가족이나 사회의 기대에 크게 비중을 두게 되는데(Osipow & Fitzgerald, 1996),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개인의 선호와 가족의 요구가 다를 경우, 이를 조화시키기 위해 개인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진로결정과정에서 이러한 내적 및 외적인 갈등은 진로장벽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앞서 여성의 진로를 설명하면서 언급하였듯이, 진로장벽이란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개인 내적이거나 외적인 요인들

을 뜻하는데(Swanson, Daniels, 1995; Swanson, Woitke, 1997; 손은령, 2001a),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요인을 추출한 여러 연구들에서 건강염려, 신체적 열등감,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등의 내적 및 외적 갈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wanson, Daniels, 1995; 김은영, 2001).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간의 관계를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은영(2001), 이연미(2001)의 연구에서 진로결정 여부에 따라 진로장벽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진로결정자와 진로미결정자 간에 진로장벽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높은 진로장벽 지각 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정홍원, 2002; 손은령, 2001a).

이후 손은령과 손진희(2005)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을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적 변인, 맥락적 변인(지각된 진로장벽), 진로행동 변인을 설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높은 장벽지각 집단과 낮은 장벽지각 집단 간에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개인이 지각하는 내적 및 외적인 장벽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내적갈등과 관련된 문항은 ‘특별한 인맥이나 배경이 없어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힘들다’, ‘내 전공분야는 미래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관계가 없다’, ‘나는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갈등이다’, ‘관심이 가는 직업분야가 있지만 나는 그 직업에 필요한 소질이 부족하다’ 등이 있으며, 외적갈등과 관련된 문항에는 ‘내가 바라는 직업을 부모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 ‘집안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바라는 직업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등이 있다.

5) 동기의 부족

이는 현재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동기란 일정한 방향으로의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내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진로영역에서의 동기는 진로의 결정 여부뿐만 아니라 결정유형의 특성, 그리고 향후 진학 및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방향성과 지속성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개인변인이라 할 수 있다(신희경, 김우영, 2005). 따라서 진로결정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학생은 낮은 진로결정 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미결정 유형을 구분한 박현일과 김기원(2003)은 진로미결정의 하위유형으로서 ‘무관심형’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자신이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자신의 성격이나 흥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직업선택의 필요성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유형이라고 설명하였다.

동기의 부족과 관련된 문항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직업선택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나중에 때가 되면 진로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진로결정보다 중요한 다른 일들이 많다’ 등이 있다.

4. 자기효능감,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

진로결정과 관련된 논문에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 학교, 지능, 부모의 사회적 배경, 부모애착,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또래애착, 유전, 환경적 조건 및 학습 경험, 진로정체감, 불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사회·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 한 개인의 진로결정 수준에는 이렇게 다양한 개인적, 심리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문승태, 김연희, 2002).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의 예측변인으로서 개인적 특성 변인인 자기효능감, 우울, 완벽주의에 대해서 다루었다. 앞서 보았듯이 여대생은 진로결정과정에 여성 고유의 진로장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간에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성식, 정철영, 2007). 이에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변인이라 판단되는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고, 대학생시기에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우울(노명선 등, 2006)이 해당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한편, 최근 우리 사회는 ‘엄친딸’, ‘알과결’ 등 여성에게 완벽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성격특성인 완벽주의가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1)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Bandura(1977)는 그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하면서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자기효능감을 정의하면서 Wood와 Mento, Locke(1987)는 자기효능감이 자신의 전체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초래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Gellatly와 Meyer(1992)는 높은 자기효능감이 과제 수행에 있어 불안보다는 동기 부여를 이끌어 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다(진준혁, 2010, 재인용). 이병임(1999)은 어떤 활동을 선택해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노력하고 유지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동시에(Peterson & Stunkard, 1992),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며,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천, 행동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Gist & Mitchell, 1992; Martocchio, 1994).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기대인 효능기대와 결과기대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규명할 수 있다.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가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예상과 인과적 평가라면, 효능기대(personal efficacy expectation)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내적 신념이다(Bandura, 1977). Bandura는 일반적으로 행동을 결정하는데 효능기대가 결과기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Sharf, 1996, 재인용). 즉, 특정 행동이 특정 결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비록 개인이 기대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실제로 그 행동을 잘 할 수 있다고 평가하지 않으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기에 더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효능기대라고 하였다.

또한 효능에 대한 지각은 미래의 행위를 단순히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인지적인 매개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의 행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행동과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길 때는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자신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길 때는 자신을 갖고 대처행동을 수행한다(Bandura, Adams, Hardy, Howells, 1980). 둘째, 자기효능감은 행동에 투여되는 노력의 양과 장애나 혐오경험을 무릅쓰고 행동이 지속되는 정도를 결정한다. 효능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노력의 양과 지속성은 증가한다.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노력을 줄이거나 완전히 포기하지만 강한 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은 더 많은 노력을 투여한다(Brown & Inouye, 1978; 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94). 셋째, 자기효능감은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행동조절 능력에 회의를 갖

는 사람은 높은 효능감을 보이는 사람보다 후에 행동이 쉽게 소거된다(진은영, 2001). 넷째, 자기효능감의 판단은 사고유형과 정서적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 이상으로 개인적인 결함에 집착하고 잠재적인 곤란을 상상하기 때문에 과제수행에 방해를 받으며 과제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적 요구에 적절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인다(Schunk, 1994).

이러한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은 진로 및 직업영역에 적용되어 ‘직업적 자기효능감(occupational self-efficacy)’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먼저 Betz와 Hackett(1981)는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 학문적 또는 진로와 관련된 결정 그리고 선택한 진로에서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여성의 진로발달을 이해하기 위하여 직업적 자기효능감(occupational self-efficacy)을 제안하였다.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진로와 관련한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자기효능감이 높은 분야를 선택, 결정하며 낮은 분야는 지연, 회피하려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위해 직업적 자기효능감 척도(Occupational Self-Efficacy Scale, OSES)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교육과 과업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각각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마칠 수 있는가, 직업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자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정도로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평가된다.

Betz와 Hackett(1981)는 직업 구성원의 성비에 있어서 여성 중심적인 직업과 남성 중심적인 직업을 각각 10개씩 선정하여 중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적 자기효능감의 성차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여학생은 여성중심 직업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이고, 남학생은 남성중심 직업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남성중심 직업과 여성중심 직업 모두에서 고른(equivalent) 자기효능감 점수 범위를 보인 반면, 여학생은 고르지

못한(nonequivalent) 자기효능감 점수 범위를 보였다. 남학생은 남성 및 여성 중심 직업에서 균일한 자기효능감 수준을 보인 반면, 여학생은 남성중심 직업에서 훨씬 더 낮은 자기효능감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Betz와 Hackett(1981)는 여성들이 남성중심 직업에 효능 기대감을 키워주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사회가 부정적이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여성은 해당 분야에서의 활동에서 실패감이 누적되고 이는 낮은 자기효능감 수준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낮은 자기효능감은 여성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제한요소로서 작용하며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맞는 그러한 직업을 고려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남미숙, 1998) 결국, 직업에 관한 자기효능감은 남성과 여성의 진로결정과 성취에 영향을 주며, 특히 여성의 진로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결론지으면서 직업적 자기효능감 이론을 도입하였다.

그 후에 Taylor와 Betz(1983)는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제안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Crites(1973)의 진로선택모델을 사용하여 진로결정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50개 항목의 과제와 행동을 관계 지어 만든 것으로,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계획수립, 자기평가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 10개씩의 항목이 들어있다. Taylor와 Betz(1983)는 CDMSE를 사용하여 자기효능감과 미결정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적다고 보고한 학생은 확신이 많다고 한 학생보다 진로미결정 점수가 높았다.

이후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졌고 진로결정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전반적 분야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진로영역에서의 수행에 있어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이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을 갖는다고 하였다.

(1) 크기(magnitude or level): 과제들을 난이도에 따라 배열할 때 쉬운 과제에 대해서는 높은 성취기대를 보이고, 과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점차 낮은 성취기대를 보인다.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과제나 상황을 얼마나 어렵게 보느냐와 관련을 맺는다.

(2) 강도(strength): 강도(strength)가 약한 자기효능감은 곤란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쉽게 소거되지만, 강한 자기효능감은 쉽게 소거되지 않으며 대처행동을 자극시킨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강도는 효능감이 쉽게 소거되지 않으며 지속성을 띠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3) 일반화(generality):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 범위의 상황이나 대상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을 맺는다.

이 세 가지 차원은 실제의 행동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각 값에 따라 이후 수행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Sherer와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Rogers(1982)는 이 중 자기효능감의 일반화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여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자기효능감을 개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Sherer 등(1982)에 따르면,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서 갖게 되는 일반화된 기대로서 정의될 수 있다(오인수, 2002, 재인용). 즉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며, 자신이 노력하면 그 상황에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자기효능감에 관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과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지속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수행 과정에서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성공적인 수행 장면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한다고 한다(Solberg, Good,

Fisher, Brown, & Nord, 1995; Tracy, 1997; 이상길, 2008, 재인용).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진로영역에서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여러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김민선, 서영석, 2010; 이은정, 장윤옥, 2008).

Lent와 Brown, Hackett(1994)은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제안하면서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를 직업행동의 중심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 교육, 훈련 등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진로선택 폭이 제한되어 있고 진로에 대한 애착이 낮다고 하였다. 이후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개괄한 Lent(2005)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여러 변인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자기효능감은 진로흥미발달, 진로선택, 수행성취, 행동지속성, 진로미결정, 그리고 탐색적인 행동들을 잘 예언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상의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여대생은 진로 영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적극적이며 성취기대를 가질 것이고,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여대생은 진로결정과 같이 도전적인 사건에 대해서 쉽게 회피하거나 포기할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진로미결정 집단의 하위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진로미결정 고등학생 집단을 유형화한 배종훈(2001)의 연구에 따르면 하위유형인 ‘발달적으로 미결정한 집단’과 ‘만성적으로 우유부단한 집단’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과 ‘선택불안이 있는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우울과 진로미결정

우울은 슬프고 불행한 감정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정의될 수 있으며, 우울증이란 우울한 기분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기분장애이다(권석만, 2003).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의 경험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동반되는데, Beck(1967)에 따르면 우울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첫째, 우울증은 정서적 증상을 동반한다. 우울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과 외로움, 공허감을 느끼며 흥미와 기쁨을 상실한다. 둘째, 우울증은 인지적 증상을 동반한다. 우울한 사람은 자기비난과 자기비하를 하며 죄의식과 무가치감을 느끼고 사고력 및 주의력 저하가 일어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갖는다. 셋째, 우울증은 생리적 증상을 동반한다. 우울한 사람은 불면증, 식욕감퇴, 체중감소, 피로감 등의 생리적 증상을 나타낸다. 이 중 인지적 증상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Beck(1967)은 우울한 사람들이 정상인들과는 다른 독특한 사고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자기 자신, 세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특이한 반응 양식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인지삼제’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은 왜곡된 인지로 인해 경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며, 장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대를 가진다. 이러한 비관적인 사고방식은 우울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다.

대학생 시기의 우울은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노명선 등, 2006), 연구에 의하면 우울은 사춘기를 전후해서 급격히 증가하며, 청소년기에는 진로 선택, 자아실현, 환경적 스트레스 등으로 분노와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 우울이나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Garber & Dodge, 1990; 한영민, 2010, 재인용). 또한 국내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주요우울장애의 발병연령은 20대에 최고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맹제, 2006).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중등학교에서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정체감 형성 및 진로결정과 같은 중요한 발달과업들이 대학생 시기로 미루어져 온 상태로 더 많은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경구, 김교

현, 이준석(2000)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경제, 취업, 학업, 대인관계, 가치관 문제 등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대학생의 우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고, 이은희(2004)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울증상이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교 청소년보다 대학생들이 훨씬 심각한 정서적 부적응 상태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대학생들은 생활스트레스 중 학업 문제와 장래 및 진로 문제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하였다. 즉, 많은 대학생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대학생 시기에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우울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생리적 증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지연시키며, 행동 및 사고과정에서 신속성이 떨어지고 행동이 둔화된다(권경미, 2009). 또한 즐거운 활동에서 쉽게 흥미를 잃는 등의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증상들로 미루어 보아 우울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그 시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직업행동과 관련된 우울의 증상에는 무망감, 흥미의 상실, 낮은 자존감, 주의집중의 어려움, 결정 곤란 등이 있으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이 모든 증상들은 개인의 진로결정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andura, 1997). 또한 우울과 정서적 상태는 개인의 흥미, 직업적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Fuller, Holland, & Johnston, 1999; Larson & Borgen, 2006). 자기 패배적인 특징(self-defeating characteristics)은 우울의 또 다른 증상인데 Sweeney와 Schill(1998)은 높은 자기 패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진로를 더 결정하지 못했으며, 낮은 직업적 정체감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유부단한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대학생들의 우울과 진로미결정 간에 관련이 있음을 밝혀졌으며(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 Smith & Betz, 2002; Larson & Borgen, 2006), Rottinghaus와 Jenkins, Jantzer(2009)는 우울과 진로결정 상태 간에 관련이 있으며, 진로를 결정한 대학생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에 비해 우울감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정희와 이은희(2008)의 연구에서는 우울·불안과 진로미결정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나 우울·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울·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의 강박증 및 우울·불안과 진로미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우울·불안 및 강박증의 성격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주변의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반면, 주변인의 많은 통제를 경험하여 결국에는 자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을 통하여 만성적인 진로미결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비록 우울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두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우울이 대학생 시기의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우울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련성만을 살핌으로써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는 신효정과 이문희(2011)가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우울이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우울한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성숙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활동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진로미결정의 예측변인으로 보고, 우울이 진로미결정의 하위유형을 구분해 주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한편 우울에는 성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노명선 등(2006)이 실시한 대학생들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요우울장애 및 경도우울장애 모두에서 남녀 간 유병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중 주요우울장애의 유병률의 성차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1년 유병률은 4.2%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9.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평생 유병률도 남학생은 7.4%, 여학생 13.8%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Matud(2004)는 여자대학생들이 남자대학생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더 예민하게 지각하며, 문제 중심적 대처를 덜 사용하고 정서 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울증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이경희, 2011, 재인용). 또한 Lucas와 Skokowski, Ancis(2000)는 여자대학생들이 사회 및 가족의 요구에 의해 어려서부터 자기희생적이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격려된다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우울 및 낮은 자존감 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후 부모 및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적 맥락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로 인해 적응에 있어서 보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여겨진다.

3)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

완벽주의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즉 완벽주의는 결점 없는 상태를 추구하고 수행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세우며, 타인의 평가와 비판에 예민한 특성으로 간주되는데(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Hewitt & Flett, 1991a),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는 수행불안, 결정 못함, 미루기와 같은 진로미결정을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연구에서 필요한 변인이다.

완벽주의에 대해 Burns(1980b)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 이상의 불가능한 기

준을 세우고, 그에 대해서 강박적인 압박을 느끼며,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생산성과 업적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평가하는 성향을 완벽성이라고 정의하였다(박윤아, 2011, 재인용). 또한 완벽주의적인 사람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며, 남보다 탁월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쉽게 자기 패배감을 느끼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초기에 완벽주의는 부적응적인 측면에서 개인 내적인 문제로 연구되었다. 완벽주의의 개념에 대해 심리학적인 정의를 처음 내린 Hamachek(1978)는 완벽주의를 정상적(normal)인 완벽주의와 신경증적(neurotic)인 완벽주의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정상적인 완벽주의자란 때로는 얼마든지 완벽이라는 기준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완벽주의 성향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면서 성취를 높이며, 자기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기는 하지만 힘들게 노력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 지속적으로 일을 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반면에 신경증적인 완벽주의자는 성취 불가능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충분히 잘 했다거나 완벽하게 해냈다고 느끼지 못한다.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동기를 갖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완벽주의가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Frost 등(1990)은 여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개발하였다. 각 차원에 기초하여 본 완벽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박윤아, 2011, 재인용).

(1) 개인적 기준: 완벽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수행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Burns, 1980b; Hamachek, 1978; Pacht, 1984).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은 노력으로 성취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2) 실수에 대한 염려: 완벽주의자들은 성취에 대한 욕구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각한다. Pacht(1984)는 완벽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하였으며, Frost 등(1990)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통해 실수에 대한 염려가 완벽주의의 중요한 요소임을 규명하였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실패할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실패 자체 보다는 실패에 대한 공포로 괴로워하는 일이 더 흔한 증상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평가되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고, 이를 피할 수 없다면 쉽게 이를 수 있는 낮은 성취를 희망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높은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자존감을 지키려고 한다(정승진, 1999).

(3) 수행에 대한 의심: 주어진 과제를 만족스럽게 끝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과 그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특성이다. 이들은 자신과 타인의 수행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실수에 대해서도 예민해서 자기 비난의 상태에 빠지기 쉽다. 완벽주의자들이 높은 기준을 세우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수한 결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수행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4) 부모의 높은 기대: 부모가 높은 수행기준이나 목표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월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지각이나 생각이다. 완벽주의자는 부모의 기대와 평가에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이며(Burn, 1980b; Hamachek, 1978; Pacht, 1984), 부모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따라서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는 더 완벽한 수행을 해야 하고, 작은 실패나 실수도 부모에게 거부당하고 사랑을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신민숙, 2006).

(5) 부모의 비난: 부모가 자기에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지각하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가 어렵고, 일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부모로부터 자주 비난을 받아왔다는 지각이다.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비난’은 완벽주의의 원인론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부모의 평가적 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한 차원이다.

(6) 조직화: 자기가 하는 일을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력하고(Missildine, 1963), 정확하며 조직이나 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완벽주의의 특징으로 여겨져 왔다. 이들은 모든 사물이 제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확하려고 하고 질서와 정리정돈에 대한 욕구가 있다(Hollender, 1965).

위의 여섯 가지 특징 중 ‘개인적 기준’은 긍정적인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긍정적인 정서와 일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조직화’와 함께 완벽주의의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한편 Hewitt과 Flett(1991a)도 완벽주의에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완벽주의 행동이 향하는 방향성(orientation)의 차이에 따라 3개 차원으로 구분하고, Frost 등(1990)과 같은 이름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를 개발하였다. 각 차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면,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는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자기의 행동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경향이다.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의 특징이 외부로 향해진 것으로 중요한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완벽함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는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자기에게 완벽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는 신념이나 지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타인이 부과한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인정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김명숙, 2003).

이밖에 완벽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행동 특징으로는 지연행동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Hewitt & Flett, 1991a)을 들 수 있다. 지연행동은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높은 기대에 대한 지각과 그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겪게 될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제를 회피하고 미루는 것으로, 이들에게 있어서 과제란 실패의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Burns, 1980b; Hamachek, 1978; 윤숙경, 1997). 이처럼 수행불안, 결정 못함, 미루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완벽주의는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진로결정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과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홍혜영, 안혜선(2009)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 하위요인 간에는 실수염려, 부모기대, 부모비난, 수행의심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개인기준, 조직화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 부분적인 상관이 도출되었고, 이재창, 최인화(2006)는 완벽주의와 역기능적인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과 확신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영주(2005)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진로미결정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김명숙(2008)은 완벽주의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Jones(1990)의 연구결과에서도 완벽주의는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ong과 Chervinko(1996)는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 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예

언변수라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김빛나, 2010, 재인용).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보았을 때, 완벽주의가 높은 여대생은 완벽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과 주변의 기대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진로와 관련하여 내적·외적 갈등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 직업조건으로 인해 진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5. 진로미결정 하위유형

이상에서 보았듯이 진로미결정에 대한 개념은 단일차원에서부터 다차원적인 정의에까지 이르렀고, 진로미결정을 측정하는 측정도구 또한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진로미결정의 원인 및 하위유형들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다.

진로미결정 집단을 유형화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Larson 등(198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미결정, 문제해결력 변인 외에 Career Planning Inventory(CPI)를 제작, 실시하여 진로문제 해결, 진로신화, 지원체제, 자신에 관한 지식, 지각된 압력, 학문적 자기효능감, 일의 세계, 진로장애 등 8개 척도를 이용하여 진로미결정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미결정 집단을 ‘무계획한 회피형’, ‘정보를 가진 미결정형’, ‘정보 없는 확신형’, ‘무지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무계획한 회피형(planless avoiders)’은 높은 미결정, 낮은 문제해결력을 보이며, CPI의 8개 척도 중 5개 척도의 점수가 최하였다. ‘정보를 가진 미결정형(informed indecisives)’은 낮은 미결정, 문제해결력을 보였으며, CPI의 8개 척도 중 7개 척도의 점수가 최상이었다. ‘정보 없는 확신형(confident but uninformed)’은 미결정 및 CPI의 점수는 보통이었으며, 문제해결력은 최상이었다. ‘무지형

(uninformed)’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보 없는 확신형’과 유사하지만 문제해결력은 보통수준이었다.

Cohen과 Chartrand, Jowdy(1995)는 진로미결정을 유형화한 많은 연구들을 정리한 뒤, 미결정 집단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으로 불안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직업적 정체감이 형성된 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은 ‘발달적으로 미결정된 집단’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자신이나 직업세계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진로와 관련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높은 자아존중감, 낮은 불안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집단은 ‘선택불안집단’으로서 진로선택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면서도 지식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낮은 직업적 정체감을 나타내는 집단이다. 마지막 네 번째 집단은 ‘만성적으로 우유부단한 집단’으로 직업적 정체감이 낮고, 진로와 자기 지식에 대한 필요성이 높으며, 낮은 목표지향성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여주는 집단이다.

국내에서 진로미결정의 하위 유형을 구분한 연구로는 배종훈(2001)과 박현일, 김기원(2003)의 연구가 있다. 먼저 배종훈(2001)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불안, 내외통제소,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을 포함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유형을 발견하였다. 각 유형은 Cohen 등(1995)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 ‘발달적으로 미결정한 집단’, ‘선택 불안이 있는 집단’, ‘만성적으로 우유부단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은 현재 진로 결정 상태에 편안해 하고 있고, 결단성이 높았다. 성격특성에서는 비교적 높은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수준을 보였고, 불안 수준은 가장 낮았다. ‘발달적으로 미결정한 집단’은 자기 명료성, 자아정체감이 높고, 내적 통제성을 보였으며, 낮은 불안을 보였다. 하지만 자기효능감과 결단성이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보다 낮았다. ‘선택 불안이 있는 집단’은 결단성이 낮았고, 낮은 자기 명료성, 자아정체감을 보였다. 그리고 자기효

능감은 높았지만 불안 수준 역시 높았다. 마지막으로 ‘만성적으로 우유부단한 집단’은 가장 낮은 결정성을 보였고, 현재 진로결정 상태에 편안해 하고 있지 않으며, 낮은 자기명료성,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또한 불안 수준은 높은 특징을 보였다.

박헌일, 김기원(2003)은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찬가지로 4개의 유형을 발견하였다. 이는 ‘준비된 결정형’, ‘준비가 부족한 결정형’, ‘준비가 부족한 미결정형’, ‘무관심형’의 유형이었으며, 각 유형에 대해서 자기효능감, 주관적복지감,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전공학과 적응, 진로준비 정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중 진로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준비된 결정형’을 제외한 각각의 미결정 유형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준비가 부족한 결정형’은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중간정도의 점수를 보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집단이다. 이들은 직업선택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편이다. ‘준비가 부족한 미결정형’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자신과 잘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가장 낮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집단이다. 이들은 직업선택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지만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무관심형’의 경우, 이들은 자기 자신 및 직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필요성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의 단호함 역시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4개의 군집별로 자기효능감, 주관적복지감,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전공학과 적응, 진로준비 정도 변인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변인들에서 ‘준비된 결정형’과 ‘준비가 부족한 결정형’의 집단이 ‘준비가 부족한 미결정형’과 ‘무관심형’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2~4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진로미결정의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문

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련 변인들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수준을 보여주는데, 이는 진로미결정 집단의 각 유형들이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개입할 경우 각각의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내용과 방법의 차이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유형에 따른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며, 하위유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유의한 변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까지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유형화 연구는 없어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여자대학교 및 남녀공학 대학교의 여학생 8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819부였으나, 문항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77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분석에 사용한 대상은 ‘한국 여대생 진로미결정 척도’의 결정점수 문항에서 평균 ±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진로결정/미결정을 구분한 325명(결정 166명+미결정 159명)이었으며, 연구대상의 학년, 학교유형, 전공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년	1	49	15.1
	2	79	24.3
	3	105	32.3
	4	85	26.2
	기타	7	2.2
학교유형	남녀공학	148	45.5
	여자대학	177	54.5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36	41.8
	자연/공학계열	24	7.4
	상경계열	27	8.3
	법학계열	7	2.2
	생활과학계열	52	16.0
	사범계열	12	3.7
	예체능계열	47	14.5
	의학/간호계열	11	3.4
	기타	9	2.8
합계		325	100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1학년이 49명으로 15.1%, 2학년이 79명으로 24.3%, 3학년이 105명으로 32.3%, 4학년이 85명으로 26.2%였으며, ‘기타’로 응답한 휴학생 및 4학년 이상인 학생이 7명으로 2.2%였다. ‘학교 유형’별로는 남녀공학의 여대생이 148명으로 45.5%, 여자대학의 여대생이 177명으로 54.5%였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136명(41.8%), 생활과학계열이 52명(16.0%), 예체능계열이 47명(14.5%)으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1) 한국 여대생 진로미결정 척도

진로결정 정도와 진로미결정 원인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미(2003)가 개발한 한국 여대생 진로미결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총 44개 문항으로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진로미결정 수준 파악단계에서는 개인의 진로결정 수준(2문항)과 그에 대한 개인의 심적 상태(2문항)에 관한 파악이 이루어지며, 각 문항은 Jones(1989)에 의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것을 김남순, 배종훈(2000)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8점 Likert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8= 매우 그렇다)로 점수의 합이 클수록 결정의 정도가 크고, 더 편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진로미결정 원인 파악단계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김정미(2003)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우유부단함’,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발된 외적 갈등’, ‘자신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 ‘여성 고유의 외적 장애’, ‘개인적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 ‘진로 및 직업의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 ‘동기 부족’의 8가지 하위요인,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이며, 각 요인별로 점수의 합이

클수록 그 요인에서 진로미결정된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미(2003)의 결과에서 보고된 Cronbach α 값은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87, 우유부단함 .80,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발된 외적 갈등 .78, 자신에 대한 명확성의 문 .70, 여성 고유의 외적 장애 .74, 개인적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 .70, 진로 및 직업의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 .67, 동기 부족 .5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α 값은 <표 2>와 같다.

<표 2> 한국 여대생 진로미결정 척도의 문항 구성 및 Cronbach α 값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1, 3, 7, 13, 18, 34	6	.82
우유부단함	2, 6, 19, 28, 40	5	.76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발된 외적 갈등	8, 14, 16, 29, 33	5	.68
자신에 대한 명확성의 문	10, 17, 24, 25, 36	5	.80
여성 고유의 외적 장애	4, 9, 15, 20, 37	5	.71
개인적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	5, 21, 26, 30, 35	5	.66
진로 및 직업의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	12, 22, 27, 31, 39	5	.75
동기의 부족	11, 23, 32, 38	4	.56
전체		40	.92

2)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Sherer 등(1982)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홍혜영(1995)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기술과 관련 있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과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에 있어서 진로미결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제외하고 일반적 자기

효능감 척도 1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직면한 일을 잘 다룰 수 있다고 느낌을 나타낸다. 홍혜영(1995)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α 값은 .86이었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Cronbach α 값은 .68이었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α 값은 <표 3>과 같다.

<표 3>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Cronbach α 값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일반적	1, 2*, 3, 4*, 5*, 6*, 7*, 8, 9, 10*,	17	.89
자기효능감	11*, 12*, 13, 14*, 15, 16*, 17*		

* 역채점 문항

3)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CES-D(Radloff, 1977)를 전점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 증상들을 4점 Likert척도(0= 극히 드물게, 3= 거의 대부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점구와 이민규(1992)의 연구에서 보고한 Cronbach α 값은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α 값은 <표 4>와 같다.

<표 4> 우울 척도의 Cronbach α 값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우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90

* 역채점 문항

4) 부적응적 완벽주의 척도

Frost 등(1990)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현진원(199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이며, ‘개인적 기준’,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조직화’의 여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과 관련 있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관해 알아보하고자 하므로 여섯 가지 차원 중 적응적 완벽주의로 분류되는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를 제외한 네 가지 차원만 사용하였다.

역채점 문항은 없으며,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각 하위요인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차원의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Frost등의 연구에서 보고된 하위요인별 Cronbach α 값은 .77~.93이었고, 현진원(1992)의 연구에서 보고된 하위요인별 Cronbach α 값은 .79~.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α 값은 <표 5>와 같다.

<표 5> 완벽주의 척도의 문항 구성 및 Cronbach α 값

하위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실수에 대한 염려	4, 5, 7, 8, 11, 13, 15, 16, 21	9	.86
수행에 대한 의심	10, 18, 19, 20	4	.72
부모의 기대	1, 6, 9, 12, 17	5	.84
부모의 비난	2, 3, 14, 22	4	.80
전체		22	.90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PASW Statistics 18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년, 학교유형, 전공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진로결정 여대생 집단과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 간에 주요 변인들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이때 진로결정 여부는 '한국 여대생 진로미결정 척도'의 진로결정 점수로 구분하였다. 구분 기준은 선행연구에 따라 평균의 ±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진로결정집단(상위집단)과 진로미결정집단(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을 하위유형으로 나누기 위하여 진로미결정 척도의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Ward(1963)의 방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군집 수를 정한 뒤, K-평균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 군집을 확정하였다.

여섯째,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을 구분해주는 유의한 개인적 특성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수집된 775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진로결정 정도, 결정에 대한 편안함, 진로미결정의 원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기술통계치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N=775)

측정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이론적으로 가능한 범위	실제 범위
진로결정 정도		11.52	3.44	2~16	2~16
결정에 대한 편안함 정도		6.67	3.93	2~16	2~16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우유부단함		15.27	3.70	6~24	6~24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발된 외적 갈등 자신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		12.47	3.07	5~20	5~20
진로미결정 원인	여성 고유의 외적 장애	10.65	2.81	5~20	5~19
	개인적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	10.94	3.18	5~20	5~20
진로 및 직업의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 동기의 부족		9.03	2.77	5~20	5~19
일반적 자기효능감		10.40	2.90	5~20	5~20
우울		11.03	2.98	5~20	5~20
실수에 대한 염려		7.89	2.18	4~16	4~14
수행에 대한 의심		56.90	10.10	17~85	21~85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모의 기대	19.05	10.24	0~60	0~57
	부모의 비난	25.27	6.51	9~45	9~45

기술통계치 분석 결과, 진로결정 점수는 11.52점인데 반해 결정에 대한 편

안함 점수는 6.67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점수간의 차이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대생들이 많은 불안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생각할지라도 결정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미(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2.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진로결정 정도와 진로미결정 하위요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 하위요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진로결정’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기대’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 ($p<.01$), ‘일반적 자기효능감’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01$). 특히 ‘자신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r=-.75, p<.01$),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r=-.62, p<.01$)이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즉, 진로미결정 하위요인을 덜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낮을수록 여대생들은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울의 경우 상관의 크기($r=-.131, p<.05$)가 작기 때문에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측정변인들 역시 대체로 서로 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기의 부족’과 ‘우울’,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간에는 관련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부모의 기대’와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자신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 ‘일반적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변인 간 상관계수

N=325

	1	2	2-1	2-2	2-3	2-4	2-5	2-6	2-7	2-8	3	4	5	5-1	5-2	5-3	5-4
1	1																
2	-.664**	1															
2-1	-.618**	.811**	1														
2-2	-.507**	.780**	.639**	1													
2-3	-.455**	.780**	.541**	.546**	1												
2-4	-.751**	.855**	.771**	.659**	.574**	1											
2-5	-.347**	.678**	.377**	.434**	.586**	.434**	1										
2-6	-.315**	.693**	.426**	.458**	.469**	.477**	.446**	1									
2-7	-.464**	.794**	.549**	.555**	.605**	.586**	.545**	.549**	1								
2-8	-.433**	.561**	.329**	.275**	.371**	.493**	.348**	.387**	.372**	1							
3	.402**	-.597**	-.476**	-.638**	-.411**	-.529**	-.317**	-.466**	-.385**	-.307**	1						
4	-.131*	.328**	.233**	.402**	.304**	.225**	.176**	.297**	.218**	.091	-.461**	1					
5	-.215**	.440**	.252**	.421**	.459**	.288**	.270**	.412**	.400**	.145**	-.378**	.485**	1				
5-1	-.163**	.354**	.184**	.344**	.294**	.229**	.199**	.384**	.372**	.134*	-.306**	.428**	.876**	1			
5-2	-.194**	.405**	.271**	.485**	.347**	.226**	.268**	.347**	.366**	.106	-.372**	.403**	.650**	.523**	1		
5-3	-.076	.180**	.090	.159**	.362**	.106	.122*	.112*	.142*	-.015	-.089	.236**	.737**	.462**	.242**	1	
5-4	-.258**	.451**	.276**	.351**	.470**	.351*	.282**	.419**	.340**	.234**	-.444**	.416**	.725**	.453**	.333**	.539**	1

참조 1. 진로결정, 2. 진로미결정 하위요인 전체, 2-1.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2-2. 우유부단함, 2-3.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발된 외적 갈등, 2-4. 자신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 2-5. 여성 고유의 외적 장애, 2-6. 개인적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 2-7. 진로 및 직업의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 2-8. 동기의 부족, 3. 일반적 자기효능감, 4. 우울, 5. 부적응적 완벽주의 전체, 5-1. 실수에 대한 염려, 5-2. 수행에 대한 의심, 5-3. 부모의 기대, 5-4. 부모의 비난

** $p < .01$, * $p < .05$

3. 진로결정 정도에 따른 특성의 차이

진로결정 여대생 집단과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 간의 연구변인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진로결정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김정미(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기준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한국 여대생 진로미결정 척도’의 결정점수 평균의 ±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결정점수가 14.96점 이상(상위기준)인 집단을 진로결정 여대생으로, 8.08점 이하(하위기준)인 집단을 진로미결정 여대생으로 분류하였다. 각 집단의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진로결정 여부에 따른 집단별 빈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체 백분율(%)($N=775$)
진로결정 여대생	166	51.1	21.4
진로미결정 여대생	159	48.9	20.5
합계	325	100.0	41.9

분류된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여대생 집단과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 및 개인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에서 진로결정 여대생 집단과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 간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t=-13.809, p<.01$), ‘우유부단함’($t=-10.382, p<.01$),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발된 외적 갈등’($t=-8.875, p<.01$), ‘자신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t=-19.402, p<.01$), ‘여성 고유의 외적 장애’($t=-5.592, p<.01$), ‘개인적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t=-5.393, p<.01$), ‘진로 및 직업의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t=-9.073, p<.01$), ‘동기의 부족’($t=-8.515, p<.01$)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은 진로결정 여대생 집단에 비해 진로미결정의 여덟 가지 하위요인들을 모두 크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1을 지지한다.

개인적 특성의 경우, 진로결정 여대생 집단과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 간에 ‘일반적 자기효능감’($t=7.581, p<.01$), ‘우울’($t=-2.083, p<.01$), ‘실수에 대한 염려’($t=-2.779, p<.01$), ‘수행에 대한 의심’($t=-3.362, p<.01$), ‘부모의 비난’($t=-4.374, p<0.1$)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이 진로결정 여대생 집단에 비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낮고, 우울을 더 경험하며, 실수에 대해 더 염려하고, 수행에 대해 의심하며, 부모의 비난을 더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는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9> 진로결정 및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 간의 연구변인별 차이

측정변인	결정 집단(N=166)	미결정 집단(N=159)	t값
	M(SD)	M(SD)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12.34(3.71)	17.71(3.28)	-13.809**
우유부단함	10.65(3.02)	14.03(2.84)	-10.382**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발된 외적 갈등	8.97(2.77)	11.74(2.86)	-8.875**
자신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	8.12(2.57)	13.77(2.67)	-19.402**
여성 고유의 외적 장애	7.98(2.46)	9.73(3.15)	-5.592**
개인적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	9.64(2.79)	11.44(3.22)	-5.393**
진로 및 직업의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	9.35(2.85)	12.27(2.95)	-9.073**
동기의 부족	6.83(1.96)	8.83(2.28)	-8.515**
일반적 자기효능감	61.04(10.14)	52.45(10.28)	7.581**
우울	18.53(11.26)	21.10(10.97)	-2.083**
실수에 대한 염려	24.43(6.74)	26.45(6.38)	-2.779**
수행에 대한 의심	10.77(3.04)	11.90(3.04)	-3.362**
부모의 기대	14.90(4.28)	15.52(4.16)	-1.333
부모의 비난	8.04(3.25)	9.65(3.39)	-4.374**

** $p < .01$

4. 군집분석을 통한 진로미결정 여대생 유형의 분류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을 동질적인 성향을 지닌 몇 개의 하위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진로미결정의 8가지 하위요인의 점수를 군집변인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들 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유사한 대상을 군집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계층적(hierarchical) 군집분석과 비계층적(nonhierarchical) 군집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층적 군집분석은 모든 대상이 하나의 군집으로 묶일 때까지 가까운 대상끼리 묶어 나가는 과정을 점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과 달리, 비계층적 군집분석은 미리 군집의 수를 정해놓고 이 기준에 맞게 거리를 나누어 각 구간에 있는 대상들을 집단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최적의 군집 수를 찾아낸 뒤,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군집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때 각 군집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Ward(1963)의 방법과 K-평균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Ward(1963)의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를 살펴본 결과, <표 10>과 같이 계수 차이에 의해 5개의 군집이 제안되었다.

<표 10> 군집화 일정표

단계	군집화 계수	계수 차이
.	.	.
.	.	.
.	.	.
151	5049.171	272.725
152	5321.896	369.798
153	5691.694	369.952
154	6061.646	445.454
155	6507.100	681.195
156	7188.295	1018.927
157	8207.222	2588.526
158	10795.748	

이에 따라 5개 군집으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군집 1은 43명(27.0%), 군집 2는 34명(21.4%), 군집 3은 21명(13.2%), 군집 4는 44명(27.7%), 군집 5는 17명(10.7%)으로 나타났다. 이를 참조로 하여 2단계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군집중심의 변화가 나타나 최종 5개의 군집이 재 산출되었다. 각 군집별 빈도는 군집 1이 23명(14.5%), 군집 2가 38명(23.9%), 군집 3이 16명(10.1%), 군집 4가 44명(27.7%), 군집 5가 38명(23.9%)이었다. 이후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은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지닌 하위유형으로 분류될 것이다’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5개 유형을 대상으로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Scheffe, Dunnett T3)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유형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2가 지지되었으며, 최종 하위유형별 평균, 표준편차 및 분산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를 유형별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특징에 따라 명명하기 위하여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는 1인 점수로 표준화하였다. 이에 따라 각 유형 내에서 변인의 상대적인 높낮이와 더불어 평균과의 비교가 가능해져 유형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유형별 표준점수 프로파일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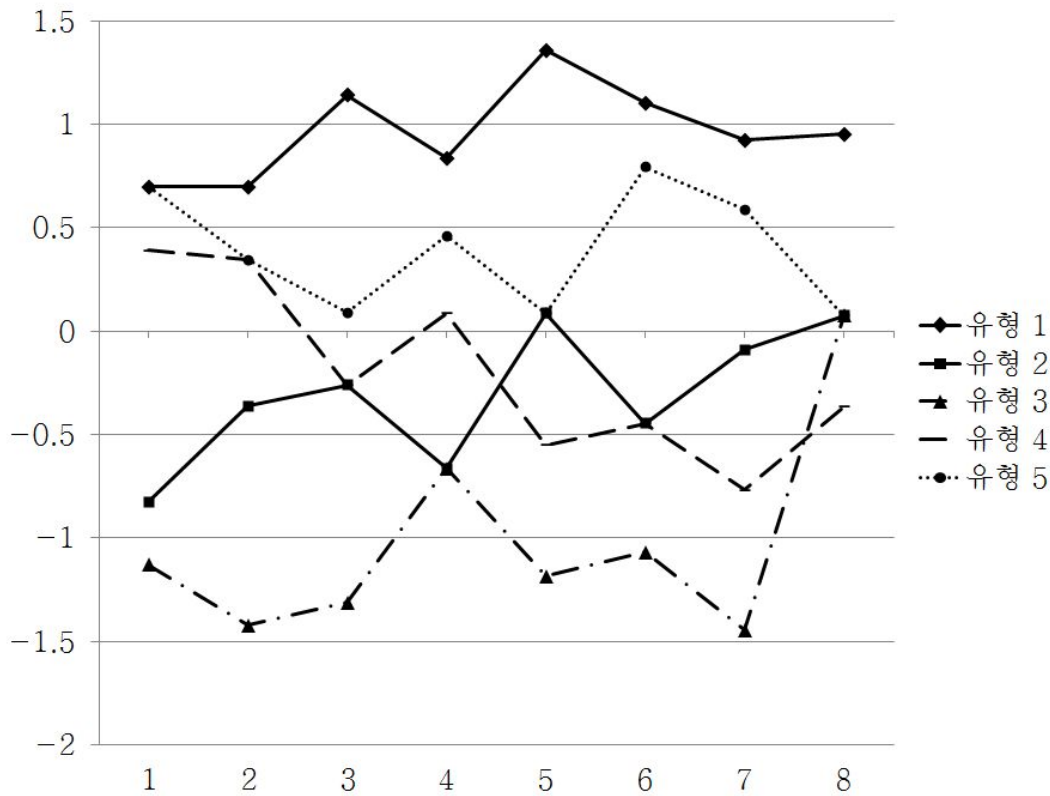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유형 1은 모든 진로미결정 하위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들은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우유부단하며, 진로문제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외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여성 고유의 외적 장애를 높게 지각하고 있고, 개인적 조건 및 직업의 조건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많이 겪고 있으며,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한 유형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전반적인 미결정형’이라 명명하였다. 유형 2는 여성 고유의 외적 장애 요인과 동기의 부족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요인과 자신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 요인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나타낸 집단이다. 즉, 이들은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어 있지만, 여성이라는 점에서 진로결정에

<표 11> 최종 하위유형별 평균, 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변인	유형 1 ^a	유형 2 ^b	유형 3 ^c	유형 4 ^d	유형 5 ^e	F	사후검정
	M(SD)	M(SD)	M(SD)	M(SD)	M(SD)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19.52 (2.47)	15.03 (2.35)	14.06 (3.87)	18.84 (2.16)	19.53 (2.31)	29.793 ^{***}	b,c<a,d,e
우유부단함	15.91 (2.71)	12.68 (2.32)	10.13 (1.82)	14.82 (2.20)	14.95 (2.31)	21.399 ^{***}	c<b<a,d,e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발된 외적 갈등	15.26 (1.84)	11.29 (2.45)	8.38 (1.78)	11.20 (2.58)	12.11 (2.13)	23.700 ^{***}	c<b,d,e<a
자신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	16.26 (2.16)	11.82 (2.18)	11.75 (2.52)	14.11 (1.94)	14.66 (2.35)	20.196 ^{***}	b,c<d<a,e
여성 고유의 외적 장애	14.48 (2.15)	10.34 (2.55)	6.13 (1.41)	7.98 (1.77)	9.79 (2.21)	49.070 ^{***}	c,d<b,e<a
개인적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	15.09 (1.83)	10.13 (1.88)	7.69 (2.06)	9.68 (2.23)	14.16 (2.01)	61.884 ^{***}	c<b,d<a,e
진로 및 직업의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	15.35 (2.19)	12.18 (1.75)	8.44 (1.67)	10.43 (2.24)	14.24 (2.03)	45.870 ^{***}	c<d<b<a,e
동기의 부족	11.17 (2.02)	8.82 (1.86)	9.44 (2.03)	7.55 (1.84)	8.66 (2.26)	12.950 ^{***}	d<b,c,e<a

*** $p < .001$

제한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한 유형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전통적 여성형’이라 명명하였다. 유형 3은 동기의 부족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나타낸 집단으로 다른 미결정 유형에 비해 진로를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동기가 부족하



<그림 1> 유형별 프로파일

참조 1.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2. 우유부단함, 3.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발된 외적 갈등, 4. 자신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 5. 여성 고유의 외적 장애, 6. 개인적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 7. 진로 및 직업의 조건으로 인한 내적 갈등, 8. 동기의 부족

여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유형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동기 부족형’이라 명명하였다. 유형 4는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요인과 우유부단함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여성 고유의 외적 장애, 개인적 조건으로 인한 내적갈등, 진로 및 직업의 조건으로 인한 내적갈등, 동기의 부족 요인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집단이다. 즉, 이들은 특히 정보가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가 부족한 의사결정 곤란형’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 5는 직업 및 진로 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개인적 조건으로 인한 내적갈등, 진로 및 직업의

조건으로 인한 내적갈등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발된 외적갈등, 여성 고유의 외적 장애, 동기의 부족 요인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인 집단이다. 즉, 이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진로결정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집단으로 ‘정보가 부족한 내적갈등형’이라 명명하였다.

5. 진로미결정 여대생의 하위유형 결정변인

이상의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을 ‘전반적 미결정형’, ‘전통적 여성형’, ‘동기 부족형’, ‘정보가 부족한 의사결정 곤란형’, ‘정보가 부족한 내적갈등형’으로 분류하고, 이들 유형이 일반적 자기효능감,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 중 어떠한 특성요인에 의해 구분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를 결정한 여대생인 ‘진로결정 집단’을 기준범주로 하여 미결정 여대생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범주형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베타 추정값과 승산비(Odds Ratio)를 보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승산비(Odds Ratio)가 1보다 작으면 독립변인이 증가할수록 기준집단에 비해 종속집단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고, 0이면 변화가 없으며, 1보다 크면 기준집단에 비해 종속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설명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기저모형의 $-2 \text{ Log Likelihood}$ 와 설명변수가 포함된 분석모형의 $-2 \text{ Log Likelihood}$ 의 차이에 기초한 chi-square값이 $129.557(p<.001)$ 로 나타나 설명변수에 의해 모형 적합도가 유의하게 좋아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체 적합도는 Deviance chi-square값이 $813.872(p=1.000)$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모형 적합도 검증을 토대로 분석모형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 ^a																			
	진반적 미결정형				진통적 여성형				동기 부족형				정보가 부족한 의사결정 곤란형				정보가 부족한 내적갈등형			
	B	SE	Wald	OR	B	SE	Wald	OR	B	SE	Wald	OR	B	SE	Wald	OR	B	SE	Wald	OR
일반적 자기효능감	-15	.03	19.44***	.86	-.07	.02	10.07**	.93	-.03	.03	1.17	.97	-.09	.02	16.00***	.91	-.10	.02	16.58***	.91
우울	-.05	.03	3.31	.95	-.08	.02	11.32**	.92	-.00	.03	.01	1.00	.01	.02	.10	1.01	-.03	.02	2.04	.97
실수에 대한 부적응	.04	.05	.54	1.04	.04	.04	1.26	1.04	.00	.05	.01	1.00	-.04	.04	1.11	.96	.04	.04	.99	1.04
적응에 대한 완벽주의	.22	.11	4.08*	1.24	.07	.08	.98	1.08	-.20	.11	3.24	.82	.01	.07	.02	1.01	.13	.08	2.48	1.13
완벽주의	-.08	.09	.81	.93	-.03	.06	.29	.97	.00	.08	.00	1.00	.08	.06	2.02	1.08	-.11	.06	2.83	.90
의미비난	.25	.10	5.93*	1.29	.07	.08	.69	1.07	-.06	.12	.26	.94	-.02	.07	.083	.98	.19	.08	5.96**	1.21
Model Fitting Criteria																				
-2 Log Likelihood																				
$\Delta\chi^2(\Delta-2LL)$																				
Likelihood Ratio Tests																				
df																				
sig																				
Intercept only				943.429																
Final				813.872				129.557				30				.000				

* $p < .05$, ** $p < .01$, *** $p < .001$

^a 기준집단: 진로결정 집단

먼저 ‘전반적인 미결정형’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요인에 의해 진로결정 집단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B=-0.149$) 진로결정 집단보다 ‘전반적인 미결정형’으로 구분될 확률이 1.16배 높았으며, 수행에 대해 의심할수록($B=0.218$), 부모의 비난을 높게 지각할수록($B=0.251$) ‘전반적인 미결정형’으로 구분될 확률이 각각 1.24배, 1.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가 낮고, 의심할뿐더러, 수행 결과에 따라 부모의 비난을 지각해 온 여대생은 진로미결정의 여덟 가지 요인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통적 여성형’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우울 요인에 의해 진로결정 집단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B=-0.074$), 우울이 낮을수록($B=-0.080$) 진로결정 집단보다 ‘전통적 여성형’일 확률이 1.08배, 1.09배 높아, 우울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신감이 부족한 여대생은 진로결정에서 여성으로서 부딪히게 될 장벽을 더 많이 지각하고 진로결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동기 부족형’은 진로결정 집단과 유의하게 구분되는 특성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 부족형’이 진로결정의 필요성을 지각한다면 얼마든지 진로를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네 번째로 ‘정보가 부족한 의사결정 곤란형’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요인에서 진로결정 집단과 유의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신감이 낮고 수행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B=-0.090$) ‘정보가 부족한 의사결정 곤란형’에 속할 확률이 1.10배 높아 진로결정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경향이 있어 진로의사결정에서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가 부족한 내적갈등형’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부모의 비난 요인에서 진로결정 집단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B=-0.100$), 부모의 비난을 높게 지각할수록($B=0.192$) 진로결정 집단보다 ‘정보가 부족한 내적갈등형’일 확률이 1.10배,

1.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신감이 낮고, 수행에 대한 기대가 낮으며, 자신의 수행에 따른 부모님의 비난을 많이 지각해 온 여대생은 외모나 학벌과 같은 자신의 조건으로 인해 취업에 제한이 있을 거라 예상하며, 직업의 외적인 기준을 더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진로결정 집단과 진로미결정 하위유형을 구분해 주는 개인적 특성 요인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우울,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비난 4가지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은 개인적 특성(일반적 자기효능감,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의해 유의하게 구분될 것이다’라는 가설 3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특히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전반적인 미결정형’, ‘전통적 여성형’, ‘정보가 부족한 의사결정 곤란형’, ‘정보가 부족한 내적갈등형’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동기 부족형’을 제외하고 진로결정과 미결정을 공통적으로 구분해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기효능감의 ‘전반적 미결정형’에 대한 승산비(Odds Ratio)가 1.16배로 가장 높아 ‘전반적 미결정형’이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여대생들의 하위유형을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개인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여대생의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진로결정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진로결정 여대생 집단과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 간에 주요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후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진로미결정척도의 하위요인 8가지를 군집변인으로 하여 Ward의 방법과 K-평균 방법의 2단계로 군집분석 및 ANOVA를 실시하였고, 서로 다른 프로파일을 갖는 5개의 하위유형(전반적인 미결정형, 전통적 여성형, 동기 부족형, 정보가 부족한 의사결정 곤란형, 정보가 부족한 내적갈등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유형을 유의하게 구분해 주는 개인적 특성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자기효능감,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예측변인으로 넣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6가지 하위요인 중 4가지 요인이 진로결정 집단과 진로미결정의 하위유형을 구분하여 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 하위요인 및 개인적 특성 간의 관계

먼저,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의 모든 하위요인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할수록, 우유부단할수록, 진로 문제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수록,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진로결정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제한을 받을 것이라 예상할

수록, 개인적 조건 및 직업의 조건으로 인해 내적갈등을 겪고 있을수록,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할수록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정도와 진로미결정의 일반적인 요인(김빛나, 2010; 김정미, 2003; 이성심, 2005), 자신에 대한 명확성(김은진, 2001), 우유부단함(이재창, 2005), 내적 및 외적갈등(김은영, 2001; 손은령, 손진희, 2005; 이연미, 2001), 여성 고유의 외적장애(손은령, 2001a; 정홍원, 2002) 등의 관계를 확인한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 중 ‘자신에 대한 명확성의 부족’ 요인이 진로결정과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여, 적성, 흥미, 가치관과 같은 자신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진로결정 수준과 가장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진로결정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민선, 서영석, 2010; 이은정, 장윤옥, 2008)를 지지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탐색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수행에 대한 기대가 낮으며, 도전적인 과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미결정자의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진로결정과 우울은 낮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우울과 진로결정 간의 관계를 밝힌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Larson & Borgen, 2006; 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 Smith & Betz, 2002). 즉 우울한 사람은 전반적으로 흥미가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주의집중이 어렵고, 의사결정의 곤란 등으로 인해 진로결정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Bandura, 1997). 그러나 관련성이 다소 약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과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Jones, 1990; Leong, Chervinko, 1996; 김빛나, 2010; 이재창, 최인화, 2006), 따라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수행불안, 의사결정의 어려움, 미루기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부모의 기대 요인은 진로결정 정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모든 하위요인이 진로결정 수준과 부적으로 상관이 있었다는 박혜선(2011)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김빛나(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김빛나(2010)의 연구에서 부모의 기대는 진로미결정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본 결과, 부모의 기대가 진로미결정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즉, 두 연구를 통해 부모의 기대가 높으면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진로를 결정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의 기대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기대 요인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못하고 있어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종합하면, 이상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낮은 자기효능감과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미결정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진로결정 정도에 따른 특성의 차이

먼저 진로결정 여대생 집단과 미결정 여대생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결정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이때 ‘결정 점수’에 비해 ‘결정에 대한 편안함 점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록 진로를 결정했다고 보고한 경우에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선택 유형을 안정적, 탐색적, 그리고 불안정적 유형으로 구분한 Blustein(198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진로를

결정한 여대생을 대상으로도 후속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미결정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진로결정 정도에 따라 주요변인들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의 기대 요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은 진로결정 여대생 집단에 비해 진로미결정의 여덟 가지 하위요인들을 모두 크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낮고, 우울을 더 경험하며, 실수에 대해 더 염려하고, 수행에 대해 의심하며, 부모의 비난을 더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집단과 진로미결정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김정미, 2003; 배종훈, 2001; 이성심, 2005)를 지지하는 것으로, 진로결정 여대생 집단과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진로미결정 집단을 대상으로 각 요인들에 대해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두 집단 간 차이는 '자신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의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즉,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여대생들은 진로결정 여대생들에 비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 직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김정미(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부모의 기대 요인은 진로결정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진로결정 정도와 부모의 기대 요인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부모의 기대는 진로결정 정도와 관련이 없으며, 진로결정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추론해 볼 때 자녀의 대학 진학으로 인해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른 요인에 비해 진로결정 정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진로미결정 여대생의 하위유형 분류 및 유형별 특징

군집분석을 통해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을 하위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다섯 개의 군집이 도출되었고, 분류된 다섯 개의 유형을 그 특징에 따라 각각 ‘전반적인 미결정형’, ‘전통적 여성형’, ‘동기 부족형’, ‘정보가 부족한 의사결정 곤란형’, ‘정보가 부족한 내적갈등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들을 유의하게 구분해 주는 예측변인이 일반적 자기효능감, 우울,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비난임을 확인하였다. 먼저, 유형별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유형인 ‘전반적인 미결정형’은 응답자의 14.5%가 해당되는 유형으로, 모든 진로미결정 하위요인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유형이다. 즉, 이들은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우유부단하며, 진로문제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외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여성 고유의 외적 장애를 높게 지각하고 있고, 개인적 조건 및 직업의 조건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많이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동기도 부족한 유형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을 것으로 여겨지며,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 직업 정보 제공, 진로 의사결정능력 함양 등 다회기에 걸친 종합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수행에 대해 의심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부모의 비난을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결정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미결정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지도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은 응답자 중의 23.9%가 해당되는 ‘전통적 여성형’으로 ‘결혼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기 어렵다’, ‘출산 및 양육과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기 어렵다’와 같이 여성 고유의 외적

장애를 지각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나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진로나 취업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학교 졸업 후 직업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결혼이라는 발달과업을 이루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진로선택 문제에 크게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들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진로결정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고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자신감이 부족한 여대생일수록 ‘전통적 여성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록 이들은 자기효능감은 낮지만 전통적 여성역할에 더 많이 동일시하고 있어 진로결정에 관해 상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우울감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자기효능감이 낮은 여성은 지각된 진로장벽 상황에서 진로결정 수준 및 결정에 대한 확신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Bandura, 1997; 이성식, 정철영, 2007). 김은희와 김봉환(2009)은 여대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상승하였고, 진로 자기효능감이 의미 있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여성 고유의 진로장벽을 다루는 프로그램과 함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향의 상담이 제공된다면 효과적인 진로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유형인 ‘동기 부족형’은 동기의 부족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는 유형이다. 즉, 이들은 다른 미결정 유형에 비해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의사결정을 잘 내리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진로와 관련하여 장벽을 지각하거나 내/외적 갈등을 별로 겪지 않지만, 단지 진로를 결정하려는 동기가 부족하여 진로를 결정하

지 못한 유형이다. 이러한 ‘동기 부족형’은 개인적 특성에서도 진로결정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미결정 유형 중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건강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Cohen등(1995)의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과 유사하였지만, 응답자 중에서 10.1%만이 이 유형에 속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결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동기를 향상시킨다면 이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 나갈 것으로 여겨진다.

네 번째 유형은 ‘정보가 부족한 의사결정 곤란형’으로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경향이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선택에 대한 불안이 높은데다가 직업정보 및 진로결정 방법에 대한 정보 역시 부족하여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데, 응답자의 27.7%가 속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진로결정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고 수행에 대한 의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택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여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은 다양한 직업정보의 제공 및 진로의사결정 교육과 같은 진로교육 형태의 진로지도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형인 ‘정보가 부족한 내적갈등형’은 직업 및 진로결정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개인적 조건으로 인한 내적갈등, 진로 및 직업의 조건으로 인한 내적갈등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유형이다. 즉 이들은 직업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외모, 학벌과 같은 개인적 조건으로 인해 선택 가능한 직업의 폭을 스스로 제한시키고, 보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직업의 외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려 하다 보니 진로결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은 진로결정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고 부모의 비난을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자신감이 부족한 이들은 개인적 조건을 더 낮게 평가하여 미리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예

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는 결코 부모님의 기준(기대)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을 것이다’와 같은 부모의 비난에 대한 지각은 보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직업의 외적인 조건을 고려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유형에는 응답자의 23.9%가 속해 ‘전통적 여성형’과 함께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에게는 직업정보의 제공과 함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향의 상담 및 직업 가치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던 개인적 특성변인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Lent, 2005; 김민선, 서영석, 2010; 이은정, 장윤옥, 2008). 본 연구에서도 역시 ‘동기 부족형’을 제외하고 모든 미결정 유형이 진로결정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즉, 전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여대생은 일련의 진로결정 과정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울의 경우 진로결정 집단과 진로미결정 집단 간의 차이 검증 결과, 진로미결정 집단에서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지만(Larson & Borgren, 2006; 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 Smith & Betz, 2002), 상관분석에서 진로결정과 우울 간의 상관의 크기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진로결정 집단에 비해 덜 우울한 미결정 유형이 존재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우울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 다른 변인이 개입할 가능성을 말해주며, 이에 따라 미결정 유형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네 가지 하위요인에서는 부모의 기대 요인만을 제외하고 모두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었으며, 진로미결정 유형에는 수행에 대한 의심과 부모의 비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에 대한 의

심은 ‘전반적인 미결정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신중하게 어떤 결과를 냈더라도 계속하여 미심쩍은 생각이 들게 되는 성격적 특성이 진로미결정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부모의 비난은 ‘전반적인 미결정형’과 ‘정보가 부족한 내적갈등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비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특성이 진로선택 시 직업의 외적인 조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기준보다는 부모의 기준을 더 의식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비난’은 둘 다 나에게 대한 부모의 반응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이 부모의 평가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로부터 기대 받는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부모의 믿음으로 인식하면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이를 평가의 기준으로 인식하면 수행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두 미결정 유형에 대한 개입 시, 이러한 부적응적인 인지양식을 수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제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이전까지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겪게 되는 진로결정 과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로 남녀 대학생을 함께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비록 성별 고유의 진로장벽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면서 여대생의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여성 고유의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포함되어 다루어지지 않는 실

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의 특징을 이해하고, 하위 유형 중 ‘전통적 여성형’이 존재함을 확인한 것은 기존의 성 중립적인 진로지도에서 벗어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내담자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진로미결정에는 다양한 원인과 유형이 있음이 밝혀져 왔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성격의 진로지도만을 실시해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다양한 진로미결정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징에 따른 개입방법을 제안한 것은 진로문제와 관련된 여대생 내담자들에게 각각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는 ‘차별적인 진단, 차별적인 처치’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진로미결정의 하위유형을 분류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유형을 구분해 주는 결정변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유형 연구들에서는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유형별 특징을 자세히 기술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제 진로지도 장면에서 내담자들의 유형을 진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진로미결정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고, 해당 유형임을 결정해 주는 유의한 변인을 파악한 것은 진로지도 장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관련 변인을 밝혀주고 효율적인 진로지도가 가능하게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여자대학교와 남녀공학대학교의 비율이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군집분석이 표본 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수는 다소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더 광범위한 표본을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여대생의 진로미결정 유형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군집분석에서는 어떠한 변인들이 군집변인으로 채택되는지에 따라 유형구분 및 유형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인의 타당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대생 진로미결정 척도’의 여덟 가지 하위요인을 군집변인으로 채택하였으나, 후속연구를 통해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을 보다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을 선택/추가한다면 실제 진로상담 적용에 더욱 의미 있는 유형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여성의 진로결정 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진로포부’변인을 포함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것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 여대생의 하위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 자기효능감,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 요인을 관련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은 다수에 이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을 채택하여 살펴봄으로써 미결정 유형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 여대생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적 자기효능감,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예측변인으로 넣어 분석하였으나, 이들을 예측변인으로 확신할 만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특성 변인이 진로미결정의 예측변인으로 보다 타당한지, 아니면 결과변인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선행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검증된 예측변인을 대상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면 진로지도 장면에서 여대생의 진로미결정 유형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데 훌륭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을 분류하고, 어떤 변인이 각 유형을 구분해주는지 기술하는 데에서 그쳤으나, 분류된 유형이 실제 진로상담 장면에서도 분류되는지 그 타당성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적 특성 변인이 진로미결정 여대생의 하위유형을 얼마나 잘 구분해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번째 연구로 판별분석을 실시한다면 유형별 진로지도에 더욱 유용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강선영 (1996). **아이덴티티(Identity) 발달수준과 진로미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미나, 박재황 (2008).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진로 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21(3), 69-85.
- 권경미 (2009). **교양무용 참여 대학생들을 위한 우울증 및 대인관계(성격장애) 척도개발과 적용**.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석판 (200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금재호 (1997). 직업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한 연계 체제 구축 방안. **진로교육연구**, 8, 93-113.
- 김계현 (1995). **상담심리학: 적용영역별 접근**. 서울: 학지사.
- 김남순, 배종훈 (2000). 진로결정검사(CDP)의 표준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4(3), 83-98.
- 김명숙 (2003).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자기존중감과 열등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2008). **중등학생의 가족체계 지각,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 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선, 서영석 (2010). 자기효능감 · 개인배경 · 맥락적 변인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2), 67-96.
- 김민정 (2000). **기혼여성의 진로태도 성숙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빛나 (2010).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진 (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 자아 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 김봉환 (2009). **진로장벽 깨뜨리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225-2239.
- 김정미 (2003). **한국 여대생 진로미결정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대 (1999). **대학에서의 진로상담의 과제와 전망**. *한국 진로상담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 부산.
- 김충기 (1989).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원사.
- 남미숙 (1998). **초등학생의 진로 자아 효능감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명선, 전홍진, 이해우, 이효정, 한성구, 함봉진 (2006). **대학생들의 우울장애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5(5), 432-437.
- 문미란 (2003). **여대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 및 다중역할갈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승태, 김연희 (2002).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4(2), 49-60.
- 박윤아 (2011). **대학생의 완벽성과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 이은희 (2008).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우울 및 강박증과 진로미결**

- 정: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03-123.
- 박종원 (2002). **진로 미결정성 척도 개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일, 김기원 (2003). 군집분석을 통한 진로미결정 집단의 유형연구 (전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24(2), 161-187.
- 박현주 (2007). **전문대학생의 직업가치에 따른 직업정보요구도 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선 (2011). **여대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종훈 (2001). 군집분석을 통한 진로 미결정 하위 유형의 탐색. **진로교육연구**, 14, 223-244.
- 서미경 (2002).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 측정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6(3), 67-91.
- 손은령 (2001a).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신기동, 전병순, 임동진, 조형숙 (2001). 경기도 실업대책 개선방안 연구.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2001(19), 1-280.
- 신민숙 (2006).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효정, 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 연구 -스트레스, 공격성, 우울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139-161.
- 신희경, 김우영 (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8(2), 47-83.
- 양난미 (2005). **한국 대학생의 사회인지 진로선택 모형 검증**. 이화여자대학

- 교 박사학위논문.
- 오인수 (2002). 일반적 자기효능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3), 49-72.
- 윤숙경 (1997). **완벽성향과 자기개념에 따른 대학생의 지연특성 차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2011). **대학생의 우울,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외모만족도의 매개효과분석**.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2003). 대학생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일치여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353-366.
-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 자기 효능감과 진로장애 지각,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임 (1999). **대학생의 전공 및 직업선택에 따른 직업적 자기 효능감, 성역할 정체감, 사고 유형의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길 (2008).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고교생과 대학생 및 성별 간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217-230.
- 이상준, 정윤경, 김규상 (2009). **진로정보센터 운영(2009) : 진로교육지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 이성식, 정철영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4), 83-109.
- 이성심 (2005). **한국대학생 진로미결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미 (2001).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5). **완벽 주의와 특성 불안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장윤옥 (2008). 개인, 가족, 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55-376.
- 이은희 (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52.
- 이재창, 박미진, 김수리 (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33-650.
- 이재창, 최인화 (2006). 완벽주의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53-872.
- 이형국 (2010). **인지적 정보처리접근 중심 대학생 진로발달 증진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316-335.
- 전경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 정승진 (1999). **완벽성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홍원 (2002).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맹제 (2006).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 진은영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정상경험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준혁 (2010).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옥 (2002). **여대생의 진로포부에 영향 미치는 요인 탐색**. 이화여자대학

- 교 석사학위논문.
- 최숙현 (2007).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탁진국 (1996). 경력미결정과 부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9(2), 81-94.
- 탁진국, 이기학 (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 경영연구**, 1(1), 167-180.
- 한영민 (2010).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보연 (2011). **개념도 방법을 통한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혜영, 안혜선 (2009).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불안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7), 149-175.
- 황지영 (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ndura, A. (1977). The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Adams, N. E., Hardy, A. B., & Howells, G. N. (1980). Tests of the generality of self-efficacy theo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1), 39-66.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3), 586-598.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an*. Orland, FL: Academic Press.
-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399-410.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2), 194-203.
- Brown, I., & Inouye, D. K. (1978). Learned helplessness through modeling: The role of perceived similarity in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8), 900-908.
- Burns, D. D. (1980b).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ber, 34-52.
- Chartrand J. M., Martin, W. F., Robbins, S. B., McAuliffe, G. J., Pickering J. W., & Calliotin, J. A. (1994). Testing a level versus an interactional view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 55-69.

- Cohen, C. R., Chartrand, J. M., & Jowdy, D. P. (1995).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Subtypes and Ego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0-447.
- Crites, J. O. (1973).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CTB/McGraw-Hill.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 Fitzgerald, L. F., & Betz, N. E. (1983). Issues in vocational psychology of women. In W. B. Walsh & S. 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83-144)*. Hillsdale, Nj: Erbaum.
- Fitzgerald, L. F., & Crites, J. O. (1980). Toward a career psychology of women: What do we know? What do we need to kno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1), 44-62.
-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Fuller, B. E., Holland, J. L., & Johnston, J. A. (1999). The relation of profile elevation in the self-directed search to personality variabl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7(2), 111-123.
- Fuqua, D. R., Blum, C. R., & Hartman, B. W. (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4), 364-373.
- Fuqua, D. R., & Hartman, B. W. (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1), 27-29.

- Garber, J., & Dodge, K. A. (1990).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eregul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Gellatly, I. R., & Meyer, J. P. (1992). The effects of goal difficulty on physiological arousal, cognition, and task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5), 694-704.
- Ginzberg, E. (1966). *Life Styles of Educational Wome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inzberg, E., Ginzbe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ist, M. E., & Mitchell, T. R. (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2), 183-211.
- Goodstein, L. D. (1965). Behavioral theoretical views of counseling. In B. Steffle (Ed.), *Theories of counseling*(pp.140-192). New York: McGraw-Hill.
- Gottfredson, G. D.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Green-black, J. (1988). Career development potential of university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National Consultation of Vocational Counseling. Ottawa, Ontario, Canada.*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1), 27-33.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Hartman, B. W., & Fuqua, D. R. (1982).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adapted for college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1*(1), 67-77.
- Hewitt, P. L., & Flett, G. L.(1991a).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olland, J. L. (1959). A Theory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 34-35.
- Holland, J. L., Dia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5), 404-414.
- Hollender, M. H. (1965). Perfectionism. *Comprehensive Psychiatry, 6*(2), 94-103.
- Jones, J. D. (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vocational indecis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2*, 1212.
- Jones, L. K. (1989). Measuring a Three-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A Revi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477-486.

- Larkin, L. (1987). Identity and fear of suc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1), 38-45.
- Larson, L. M., & Borgen, F. H. (2006). Do personality traits contribute to vocational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3), 295-311.
- Larson, L. M., Heppner, P. P., Ham, T., & Dugan, K. (1988). Investigation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4), 439-446.
- Lent, R. W. (2005). A social cognitive view of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101-127). NJ: Wiley.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eong, F. T. L., & Chervinko, S. (1996). Construct Validity of career indecision: Negat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3), 315-329.
- Lucas, M. S., & Epperson, D. L. (1990). Types of vocational undecidedness: A replication and refin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4), 382-388.
- Lucas, M. S., Skokowski, C. T., & Ancis, J. R. (2000). Contextual themes in career decision making of female clients who indicate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3), 316-325.
-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4), 239-248.

- Martocchio, J. J. (1994). Effects of conception of ability on anxiety, self-efficacy, and learning in train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6), 819-825.
- Matud, M. P. (2004). Gender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7), 1401-1415.
- McWhirter, E. H. (1997).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24-140.
- Missildine, H. (1963).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New York: Wiley.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us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56-469.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233-243.
- Osipow, S. H., & Fitzgerald, L. (1996).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4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4), 386-390.
- Parsons, F. (1909). *Choosing Vo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Peterson, C., & Stunkard, A. J. (1992). Cognates of Personal Control: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 and Explanatory Style.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1(2), 111-117.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jewski, J. W. (1994). Career Indecision Types for Rural Adolescents From Disadvantaged and Nondisadvantaged Background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3), 356-363.
- Rottinghaus, P. J., Jenkins, N., & Jantzer, A. M. (2009). Relation of depression and affectivity to career decision status an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3), 271-285.
- Salomone, P. R. (1988). Career counseling: Steps and stages beyond Person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3), 218-221.
-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 P., & Reardon, R. 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2), 288-298.
- Schunk, D. H. (1994). Goal and self-evaluative influences during children's mathematical skill acquisition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Washington, DC.*
- Sharf, J. B. (1996).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51(2), 663-671.
- Smith, H., & Betz, N. (2002). An examination of efficacy and esteem pathways to depression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4), 438-448.
- Solberg, V. S., Good, G. F., Fisher, A. R., Brown, S. D., & Nord, D. (1995).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 Relative effect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8-455.
- Spencer, A. L. (1982). *Seasons*. New York: Paulist Press.
- Stumpf, S. A., Colarelli, S. M., &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2), 191-226.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 New York: Harper & Row.
- Swanson, J. L., & Daniels, K. K. (1994).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raw data,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Swanson, J. L., & Daniels, K. K. (1995).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wanson, J. L., & Daniels, K. K., & Tokar, D.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2), 219-244.
- Swanson, J. L., & Tokar, D. M. (1991a).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1), 92-106.
- Swanson, J. L., & Tokar, D. M. (1991b).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3), 344-361.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4), 443-462.

- Sweeney, M., & Schill, T. (1998). The association between self-defeati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career indecision, and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6*(1), 69-81.
- Taylor, D.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iede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Westbrook.
- Tracy, T. J. G. (1997). The structure of interests and self-efficacy expectation: An expended examination of the spherical model of intere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1), 32-43.
- Vondracek, F. W., Hostetler, M., Schulenberg, J. E., & Shimizu, K. (1990).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98-106.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 Wood, R. E., Mento, A. J., & Locke, E. A. (1987). Task complexity as a moderator of goal effect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3), 416-425.

ABSTRACT

The Study on Subtype of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Career Indecision by The Cluster Analysis

Song, Ji-Eu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ubtype of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career indecision by cluster analysis.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775 female college students, who responded to the several scales completely. The subject were sampled from women's universities and coeducational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area. Finall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325 subjects(decision 166, indecision 159) were used in the analysi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luster analysis, ANOVA,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scale, SES(self-efficacy scales),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FMPS(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were administered to the femal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career indecision, 8 factors of The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scale, Self-efficacy, Depression, Unadaptive perfectionism(except 'Parental expectation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variables(except 'Parental expectations') between career decision group and career indecision group. Third, by utilizing hierarchical and K-means cluster analysis, total samples were divided into 5 types. Forth, The determinant variables influencing on career indecision type were derived Self-efficacy, Depression, Doubts about action, Parental criticism.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Subtype, Cluster Analysis

부 록

부록 1. 한국 여대생 진로미결정 척도
(결정 및 편안함 문항)

부록 2. 한국 여대생 진로미결정 척도
(미결정의 원인)

부록 3.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부록 4. 우울 척도

부록 5. 부적응적 완벽주의 척도

안녕하세요?

본 설문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이 설문지는 **진로미결정의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을 잘 설명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약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문 결과는 여대생들의 진로미결정의 특징 및 양상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에서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차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컴퓨터로 처리되어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에 따른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연구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질문내용을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과정 송 지 은 드림
지도교수: 이 정 윤

1.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결정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앞으로 일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결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나는 진로를 결정할 때 편안하며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나는 나의 진로선택에 별 걱정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다음은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3	진로와 관련된 정보들을 나의 특성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 몰라서 진로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4	부모, 떠느리, 배우자, 직업인 등의 모든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진로결정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5	나의 신체조건으로 인해 취업 시 차별을 받을 것 같아 진로결정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결정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7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상황과 타협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진로결정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9	출산 및 양육과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직업 선택 시 내가 우선시하는 조건(예: 대인관계, 직업 환경, 나의 능력 발휘)이 무엇인지 몰라서 진로결정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11	나중에 때가 되면 진로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진로를 결정할 때 남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서 결정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얼마나 다양한 직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4	내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나에게 다른 종류의 다양한 진로를 추천해 주기 때문에 진로결정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15	내가 이 진로를 선택하면 주위로부터 여자답지 못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진로선택을 주저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6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나에게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진로결정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8	내가 관심을 가지는 직업의 특성(예: 봉급, 일의 성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마음이 불안해서 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0	내가 선택한 직업을 애인이나 남편이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1	특별한 인맥이나 배경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22	진로를 결정할 때 능력이나 성격적 특성보다 경제적인 문제(보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로결정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23	지금 당장은 진로결정보다 중요한 다른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내가 어떤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진로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5	내가 가진 적성이나 능력은 내가 원하는 직업과 관련이 없어서 진로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6	내 연고지나 학벌로 인해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부끄럽지 않은 직업을 갖고 싶기 때문에 진로결정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28	나는 나의 결정에 대해서 성급했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29	내가 원하는 진로와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예: 부모님, 선생님, 형제자매, 친구 등)의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진로결정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0	내가 흥미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의 외모로는 선택할 수 없는 직업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1	내가 원하는 직장의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32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진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3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진로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예: 적성, 봉급, 인지도, 안정성 등)으로 조언해주는 정보가 달라서 진로결정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4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의 취업조건에 대해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35	나의 외모로 인해 직장생활에서 나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6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진로에 흥미가 없어서 진로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37	진로를 선택할 때, 결혼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38	나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①	②	③	④
39	내가 원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진로결정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40	나는 무엇이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3. 다음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만들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즉시 시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떤 과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나는 될 때까지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일을 끝마치기 전에 포기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회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7	일이 너무 복잡해보이면 아예 시도하지도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달갑지 않은 일을 할 때도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곧 바로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새로운 일을 배우려고 할 때 처음에 잘 안 되면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처리하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너무 어려워 보이는 것은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3	나는 실패하면 더 열심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무슨 일이든 잘해내지 못할 것만 같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쉽게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여러분이 **최근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태**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문항을 잘 읽은 후, **지난 1주 동안** 여러분이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표시(○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극히 드물게 (0~1일)	가끔 (1~2일)	자주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0	1	2	3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0	1	2	3
4	다른 사람들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5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0	1	2	3
6	우울했다.	0	1	2	3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8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0	1	2	3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11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0	1	2	3
12	행복했다.	0	1	2	3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수가 줄었다.	0	1	2	3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0	1	2	3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6	생활이 즐거웠다.	0	1	2	3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18	슬픔을 느꼈다.	0	1	2	3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0	1	2	3
2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0	1	2	3

5. 다음은 여러분의 수행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생각들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지니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렸을 때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서 야단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부모님은 나의 실수를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으셨다.	①	②	③	④	⑤
4	만일 내가 직장이나 학업에서 실패한다면, 나는 한 인간으로서 실패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속이 상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부모님은 모든 면에서 내가 최고이길 바라셨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을 때, 나는 그 일 전체를 다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내게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든 뛰어나게 잘해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신중하게 어떤 일을 했는데도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무슨 일에서든지 최고가 아니면 싫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부모님은 내가 뛰어나길 기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실수를 하면 나에게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낮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4	나는 결코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남들만큼 잘하지 못한다면 이는 내가 열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항상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부모님은 내 장래에 대해 늘 나보다 높은 기대를 갖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8	일상생활의 단순한 일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9	일을 자꾸 되풀이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무슨 일을 내 마음에 들게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실수를 적게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좋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결코 부모님의 기준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p>< 인적사항 ></p> <p>1.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기타()</p> <p>2. 나이: 만 ()세</p> <p>3. 학교유형: ① 남녀공학 ② 여자대학</p> <p>4. 전공계열: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공학계열 ③ 상경계열 ④ 법학계열 ⑤ 생활과학계열 ⑥ 사범계열 ⑦ 예체능계열 ⑧ 의학/간호계열 ⑨ 기타:()</p>
